

진흥회 활동

제20차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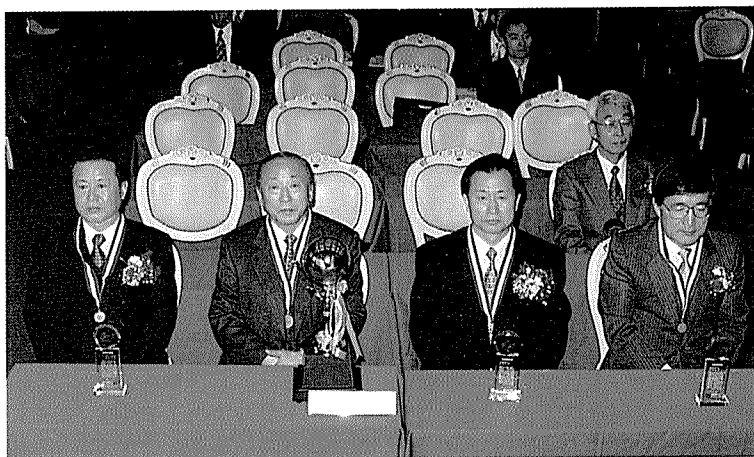
「96년을 전자산업 세계화의 해」로 선언

- 국산전자부품 종합정보 DB구축 등 8대 중점사업 확정 -
- 본회 명칭 「한국전자산업진흥회」로 -



본회는 지난 2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회원사 350여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본회는 금년의 대내외 여건이 경기하향, 엔고효과 소멸 및 원화절상 등으로 기회요소보다도 문제요소가 많아 올해는 성장목표를 전년대비 22.5%로 견실하게 설정, 전자산업의 경영안정화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아감과 동시에 금년을 「전자산업 세계화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적인 전자산업인 초청강연회, 세계화 전략 포럼개최, 부품업체 동반 해외투자활성화 등을 통해 경영의 세계화 기반을 조기



에 구축토록 하는 등 8대 중점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추준석 통상산업부 차관보는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9%의 높은 성장률과 수출 1000억달러 달성은 전자산업인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공로를 치하하고 「그러나 우리경제는 엔고효과 감퇴와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채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대응태세를 요구받고 있다」며 전자업계의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촉구했다.

또한 본회 구자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경기여건이 안좋아지고 있으나 전자산업인이 뚝돌 뭉치면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회는 산업구조 고도화 단계에서 누구보다 어려움이 큰 전문 중소전자부품 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품수급 기업간 협의회를 구성해 국산전자부품 종합정보 DB제작, 우수개발부품 콘테스트 및 전시회 개최, 전자부품 표준화·공용화사업 확대 등 부품수급 기업간 협력사업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초고속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개발 등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완화, 개발자금 확대, 대규모 연구개발입지 조성 및 노트북 PC, 휴대폰 등 차세대 유망품목의 발전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면서 3개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자종합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해 업무효율성과 회원 서비스 사업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본회의 명칭을 한국전자공업진흥회에서 「한국전자산업진흥회」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주요업무계획은 13 page 참조)

경쟁력 강화기반기술 개발사업 자금지원 설명회

본회는 지난 3월 5일 과학기술회관에 정보통신 관련업체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회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경쟁력 강화기반 기술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5년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되는 교환시스템, 전송시스템 및 접속장치 등을 본회가 맡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날 설명회는 정보통신연구관리규정(정보통신부고시 제1995-158호) 제4조 제1항의 동사업을 위탁받아 동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된 것인데 초고속기획단 김재명 사무관이 정보통신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설명하고 본회 박병철 과장과 정보통신진흥협회 이재찬부장이 경쟁력 강화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설명했다.

한편 동사업은 국내업체의 초고속정보통신 관련시스템 공급기반 강화와 업체의 기술개발 투자리스트 경감을 통한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을 육성키 위한 것으로 지원분야로는 교환장비, 전송장비, 접속장치, 단말기기, 핵심부품 등이다.

특히 장비와 장치의 시제품 및 핵심부품 연구개발 과제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자금지원은 총 64억원으로 과제당 지원한도액은 2억원이다.

지원비율은 대기업이 개발사업비의 50% 이내, 중견기업이 개발사업비의 60% 이내, 중소기업이 개발사업비의 80% 이내이다.

동사업 자금지원은 3월 23일까지 교부하며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접수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본회 정보산업과(553-09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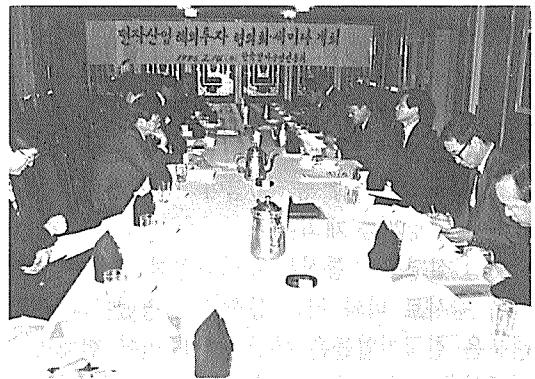
해외바이어 초청 극산전자의료기기 설명회

본회의 전자의료기기산업협의회(회장: 두산상사 상무 한원국)는 지난 3월 8일 섬유회관에서 해외전자의료기기 시장 개척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캐나다, 태국 등 27개국 70여명의 해외바이어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동설명회는 국내 전자의료기기 업계 메디슨, 중의메디칼, 대화기기, 동아메디칼, 두산상사, 한신메디칼, 로얄메디칼 서울센트랄상사 등 8개 의료기기 전문제조업체들이 참여자사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동협의회는 이와같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중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3월말에는 유럽시장 진출의 필수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는 CE마크 등 외국 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전자의료기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해외투자협의회 연례회의 및 세미나



본회의 해외투자협의회는 지난 2월 14일 만보성에서 삼성전자 이재경 상무 등 15명이 참석 동협의회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95사업실적과 96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동협의회는 통산부가 최근 발표한 세계유망시장에 대한 투자환경조사를 설명했다. 또한 해외투자 진출시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호협조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것 등을 논의했다.

또한 세계 주요지역에서 공급가능한 부품 리스트를 작성 정기적으로 협의회 회원사에게 공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중앙대 전용욱교수의 「전자산업의 세계화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다.

자기미디어산업協 새회장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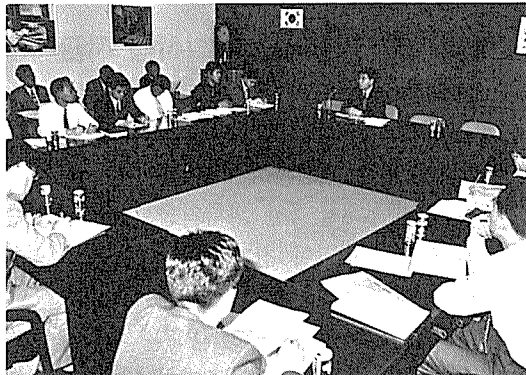
본회는 지난 2월 7일 롯데호텔에서 자기미디어산업협의회 교례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장용균(주)SKC사장을 선임했다.

이날 교례회에서는 또 한형수 초대회장(새한미디어 대표이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한편 최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적복제 보상금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산업피해 구제제도 설명회 개최

본회는 지난 2월 15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삼성전자 최수기과장 등 20명이 참석 산업피해구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통산부 무역위원회 김용우 서기관이 강사로 나와 최근 동향을 설명했는데 주요 내용은 한국기업들은 통상문제에 있어 현재까지 외국의 무역규제에 대응하는 수세적 입장에만 있



어 왔었으나 수입이 개방되면서 한국기업도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공격적 통상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자료의 DB화 및 수입급증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자동적인 모니터링은 KOTIS를 통해 금년말 시연회를 가질 것이며 향후 산업피해 구제에 대한 구체적 절차 및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국내 컴퓨터산업 동향」보고서 발표

본회는 지난 2월 29일 「국내 컴퓨터 산업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 컴퓨터생산은 개인용 컴퓨터 14억7,800만달러, 중대형 컴퓨터 7,900만달러, 모니터 42억2,700만달러, 보조기업장치 15만2,800만달러, 프린터 5억3,800만달러 등 83억1,500만달러 전년대비 29.0%의 신장률이 예상됐다.

이중 개인용컴퓨터의 경우 네트워크PC의 출현으로 기존PC시장의 잠식이 우려되기 있으나 멀티미디어 및 인터넷의 대중화 확산으로 전년 대비 10.7%의 신장률이 예상됐고 중대형 컴퓨터는 기업의 정보화 투자확산으로 28.9%의 성장이 기대됐다.

모니터는 고해상도 대형모니터의 수용증가로

전년대비 39.2% 보조기억장치는 PC의 멀티미디어화와 대용량 보조기업장치의 수요증가로 119%의 신장률이 전망됐다.

또 수출은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 전년대비 1.6% 증가한 2억5,000만달러, 중대형 컴퓨터는 40.0% 증가한 33억8,800만달러 등 전년대비 25.4% 증가한 53억5,600만달러가 예상됐고 내수는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 전년대비 17.0% 증가한 16억3,100만달러, 중대형 컴퓨터는 21.8% 증가한 6억7,600만달러, 모니터는 20.3% 증가한 7억7,600만달러, 보조기억장치는 21.7% 증가한 73억7,200만달러가 기대됐다.

부품표준화 및 공용화사업 확대

본회는(회장 구자학)는 올 가전산업 경쟁력 확보책으로 △부품표준화 및 공용화사업확대 △특별소비세 인하 추진 △분과협의회 활성화 등 9개 세부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본회는 우선 지난해부터 추진한 부품공용화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컬러TV·냉장고·세탁기·전자레인지·청소기 등 5개 제품 18개 부품의 공용

화를 추진하고 수입의존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지대한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용화 하기로 했다.

또 분기별로 추진사항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업계의 채용확대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가전제품 수요 확대책으로 특별소비세의 인하를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대책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논란을 빚고 있는 사적복제보상제의 도입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외국의 실태와 시행상의 문제점을 집중점검키로 하는 한편 전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본회는 또 시장개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홈오트메이션협의회와 음향기기협의회를 통해 수요촉진책과 부양책을 마련키로 했다.

본회는 이밖에도 신가전제품의 발전환경을 조성, 업계의 수요책을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 DVD(디지털 비디오 디스크)·CDI(컴팩트 디스크 인터랙티브) 등의 생산·시판 등 수급동향과 국내의 수급전망 등을 파악, 회원사에 제공하고 이의 품목분류체계에 대한 정립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양심으로 깨끗한 선택을**